나노기술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우리나라가 나노기술(NT) 분야의 국제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노과학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주도적인 활동에 나선다.

과학기술부는 3월26일부터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89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총회에서 신설되는 <나노기술작업반>의 나노 인프라와 기술혁신 및 상업화 부문에 주도적인 참여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나노기술작업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의 영향 평가, 인프라, 기술혁신과 상업화, 나노기술 관련 정책현안 등에 관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과기부는 총회에 최광연 미주기술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을 파견해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제시하고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해 국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007년 회의에서는 분자 수준의 인간 유전자 검사에 대한 국제지침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간 유전자 검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각국의 규칙과 절차가 달라 통일된 국제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3월 총회에서는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생명공학 작업반 총회에서 마련된 <분자수준의 유전자 검사 품질인증에 대한 지침>이 국제지침으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7/03/26>